

# 클릭... 클릭... "불국토 열어요"

## 사이버 공간 스타 스님들

인터넷 시대를 사는 불자들은 사이버 공간에 설립된 사찰을 찾는다.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네티즌의 수에 비해 사이버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는 많지 않다. 아직 불자들에게 인터넷 공간이 낯설기 때문일까. 아니다.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 온 불교계의 '선구자'가 많지

않은 탓이다. 그런 가운데 사이버 공간에서 적지 않은 팬들을 확보하며 사이트를 운영하는 스님들이 있다. 전 법과 수행의 일념으로 사이버 공간에 뛰어들어 불국토를 열어가려는 스님들을 통해 인터넷 시대, 그리고 그 다음 세상에 구현될 불자들의 세상을 가늠해 본다.



●종림 스님  
고려대장경 전산화 불교 IT계 이끌어



●성범 스님  
경전총론 서비스 화엄경 CD롬 펴내



●벽공 스님  
금강경 교리 등 연재 참선 상담교실 운영



●정도 스님  
1년간 나무부마 법사 카페 법문 올려 호평



■종림스님(www.sutra.re.kr,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 종림스님은 고려대장경 전산화 불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불교계 IT 선두주자이다. 1993년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시작한 전산화 사업은 우선 팔만대장경을 CD에 담아 지난해 말 완성하면서 1차적 결실을 맺었다. 스님은 93년 이후 꾸준히 세계전산화 학술회의에 참석하는 등 지난 8년 간 끊임없는 전산화 열정을 불태웠다. 사이트도 개설해 그간의 활동 사항은 물론 대장경연구소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장경연구소 홈페이지는 대장경 열람 검색 코너가 있어 언제든지 대장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이곳은 경전에 대한 것 뿐 아니라 번역자, 저자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종림스님은 "아직 초보단계까지는 하지만 불전전산화 작업으로 불교계는 정보화 사회로 이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성범스님(www.sejon.or.kr, 고암 용화사 주지) = 성범스님이 운영하는 불교경전총론 홈페이지는 초심자와 깊이있는 불교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을 위해 <화엄경>과 <법화경>을 총정리하고 있는 곳이다. 1910년대 이후 가장 최근까지의 불교와 관련된 각종 해설서와 자료, 논문 등이 총망라 되어 있다. 경전 본문의 불교용어를 사전식으로 검색할 수 있고 불교용어를 경전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또 불교를 중심으로 한 타종교와의 비교도 정리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스님이 그동안 정리해온 <화엄경>을 <화엄경총론>이란 이름으로 CD롬에 담아 펴내는 등 불교의 전산화 노력을 보여 세간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성범스님은 "총론 전산화불사"는 주요경전 등 불교교학은 물론 수행에 관련된 불교의 전반적인 교리와 사상 등이 총망라 된 것"이라며 "불자들에게 출가자다운 '법보시'를 행하는 일이 승려의 본분인데 나에겐 그 '법보시'의 결정체가 바로 전산화 불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벽공스님(www.mahazen.org, 마하선원 주지) = 벽공스님이 인터넷에 등지를 하게 된 계기는 부처님이 설하신 교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일반 대중에서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인터넷이 없었던 20년 전부터 불전의 현대화

에 관심이 있었던 스님은 그 관심을 이제 인터넷에서 마음껏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마하선원 홈페이지 주력하는 코너는 금강경 교리 연재와 인터넷 참선교실. 벽공스님이 운영하는 마하선원 홈페이지에는 생활과 직결된 실천 불교를 지향하는 것이다. 벽공스님은 "렘송이 젊은 세대의 생활 속에 뿌리 내리듯이, 다가오는 세대의 남다른 의식에 맞추기 위해 불교도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며 "옛 것과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불교계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실천정진의 저변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마하선원 홈페이지는 생활 속의 상담과 함께 교리상담 정진상담 등 여러가지 상담으로 네티즌들을 사로잡고 있다.

■정도스님(www.ijoyesa.net/club/default.asp, 조계사 카페 운영) = 조계사 포교국장인 정도스님은 나무누리 불교동호회인 부처님마음 회원들과 생각교과를 나누며 지도법사로 1년여 동안 활동해 왔다. 지금은 조계사 홈페이지에 카페를 개설해 네티즌 불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스님이 운영하는 카페에서는 부처님 말씀이나 좋은 글들을 올리면서 불자들의 예모사함을 상담해주기도 한다. 정도스님은 "아직까지 오프라인 모임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더 카페가 활성화 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말했다. 올 초 오픈한 조계사 홈페이지는 네티즌과 함께 호흡하는 것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곳의 카페는 조계사 회원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정범스님(jb8885.buddhism.org, 다음넷 카페 운영) = 정범스님의 홈페이지에는 정이 가득하다. 지난해에는 언론사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홈페이지 등에 선정된 정도로 깔끔한 디자인을 자랑해왔다. 그러던 홈페이지가 스님이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잠시의 침체를 거쳐 다시 지금 주소를 이전하면서 더욱 세련미를 더하고 있다. 지금은 사이트 운영 뿐만 아니라 다음넷에 카페(cafedaum.net/jb8885)까지 개설해 왕성한 사이버 포교활동에 나서고 있다. 카페에서는 일의 기쁨의 하버드 이야기, 해민스님의 프린스턴 이야기 등의 게시물이 인기를 얻고 있다. 김지연 기자 jyan@buddhism.com



▶컴퓨터소임을 맡은 스님들이 새로 업데이트 된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좌로부터 원세, 명경스님과 앉아있는 해관스님.

## 찰나에 부처님 말씀 '사바로'

### 청암사 승가대 컴퓨터실

새벽공부, 발우공양에 이어 오전 수업이 끝나는 9시, 청암사 강원외도학인스님들은 입승학인의 대표자, 참종 11명과 기강을 확립하는 소임자, 원주후원 살림 책임자 등 자신이 맡은 소임에 따라 각자의 일을 시작한다. 명경, 원세, 해관스님도 맡은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컴퓨터실로 향한다. 작년 봄에 처음 생긴 컴퓨터 소임, 컴퓨터 소임은 청암사 승가대에만 있는 특이한 소임으로 컴퓨터실과 청암사 홈페이지(http://chungam-sa.or.kr)를 관리 운영하는 일을 담당한다. 정범루에 위치한 컴퓨터실, 10대의 컴퓨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제일 먼저 컴퓨터실에 도착한 명경스님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방문 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스님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문의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을 한다.

소개했던 내용 때문 소임자 스님들이 달마넷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내 "산중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소개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복속부담이었다. 그래서 강주스님과 강사스님이 의논하여 홈페이지제작에 뜻을 모았고, 4개월의 준비 끝에 2000년 7월 15일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이 아날로 전화위복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더불어 사내에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해 사무실, 도서관, 극락전, 진영각에 30여대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최신 빌드 프로젝트 등 멀티시스템을 구축,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승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강사 상덕스님은 "화장간인 지형스님과 급속히 변화해 가는 시대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승가시대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고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며 "산중이라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

### 컴퓨터도 소임 과목 최신 멀티시스템 구축 대중과 통신교류 활발

원세, 해관스님도 컴퓨터실에 들어오자마자 자유게시판과 편지보내기 코너를 통해 들어온 불교관련 문의에 답변을 하고 육화로이야기에 부처님 말씀을 선포해 올린다.

스님들의 이같은 노력으로 자유게시판은 하루에도 평균 10여건에 가까운 글이 올라올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청암사를 찾을 수 없는 신도들이 스님들과 E-Mail을 통해 매일매일 자기 주변상황, 공부상태, 불자로서의 힘든 일 등을 상담하고 있다.

명경스님은 "일마전 미국에 살고 있는 허옥신 보살에게 장문의 편지와 함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학인스님들의 단체인 금강회와 어린이 법회를 위해 써달라고 200원을 보시 받았다"며 "청암사 홈페이지는 인간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웃음을 내 보인다.

청암사 스님들이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달마넷에 이곳이 위치한 곳은 깊은 산속의 본지에 처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라고 청암사를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젊은 학인 스님들을 위해 현대적 교육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소박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스님은 또 "인터넷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매체"라며 "전통강연 뿐만 아니라 불교계에서 인터넷 관련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정보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현실 속에 청암사가 이미 1년전부터 학인스님을 위해 최신 멀티미디어를 구비한 것은 획기적인 일로 평가된다.

조석예불, 새벽과 오전공부에 이어 2시에서 4시,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학인으로서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 컴퓨터실을 지키고 있는 세명의 소임 스님들엔 하루 24시간이 짧지만 하다. 컴퓨터 소임의 특성상 손이 많이 가는데다 강권 수업을 따라가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님들은 강원외도의 대중생활을 하면서 네티즌들이 불교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것에 재미를 느끼며 오늘도 컴퓨터실을 지키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ll@buddhism.com



### 삼보에 귀의하옵고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나라당은  
불자여러분과 함께  
국민우선정지에 임하겠습니다

###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

<한나라당 불자 국회의원>

하순봉, 김진재, 김기배, 김태호, 정재문, 김찬우, 김영일, 박헌기, 전용원, 김용갑, 이상배, 이해봉, 임진술, 정문화, 강신성일, 김용균, 김용학, 김학송, 도종이, 손희정, 엄호성, 윤두환, 이원형, 이인기, 최병국, 황승민

<한나라당불교신도회장 함종한 외 불교신도회원> 일동